

127. 배터리 제조 사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조혈기계 장애, 독성물질 중독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배터리 생산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이OO은 1987년 OO전기(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7년 10월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이OO은 대학 졸업 후 1987년 (주)OO 전기에 입사하여 기술개발, 연구소 등에서 2004년 10월까지 근무하였다. 사업장 진술에 의하면 1994년 이후 파트 리더로서 사무직의 작업만을 수행하여 특별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으며 동료근로자에 의하면 하루 1회, 20-30분 가량 공장전체 순시 외에는 사무실내 근무만 하였다고 한다. 그 이전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태국공장 근무시에도 관리파트에 배치되어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입사 초 기술파트에 근무 중에는 사무실 근무와 실험을 병행하였고 실험실 근무는 매우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내용은 원자재 대체 실험을 위한 자재 혼합 작업이 있는데 분말형태의 원자재를 보호의와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수행하여 연 2-3회 정도 한다고 한다. 회사 측은 90년부터 무수은, 무카드뮴 전지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이OO은 2001년부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2년 OO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편측성 안면 경련을 진단받았다. 2003년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전신에 힘이 없고 온몸이 조이는 듯한 통증, 전신의 떨림, 호흡곤란, 우측 안면 경련, 지속적인 오심등이 생겼다. 이후 휘발유, 페인트, 식용유 냄새 등을 맡으면 증상이 심해져 계속 근무가 어려워 2004년 12월에 회사를 퇴사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조혈기계 이상에 대한 검사 상 2006년 9월 경도의 범혈구 감소증을 보였고 2006년의 말초혈액도말검사 상에서도 범혈구감소증이 있었고 골수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시행한 2008년 1월의 검사 결과 호전된 상태였다

4. 결론: 근로자 이OO은

- ①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조혈기계 장애, 독성물질 중독으로 진단되고 요양신청 되었는데
- ② 조혈기계 장애는 현재까지의 경과 상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은 업무와 연관된 요인을 찾을 수 없었고
- ③ 독성물질 중독은 과거 누출사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 및 현재의 의학적 상태로 보아 중독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OO의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간대성 안면연축, 조혈기계 장애, 독성물질 중독은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